

☐ 홈 > 뉴스 > 지역 > 강릉

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'정상화'

이사진 재편성... 예산 동결도 해지

2008년 01월 21일 (월)

박경란

운용기금 부족 등으로 기능이 마비됐던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이사진을 재편성하고,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.

강릉문예재단(이사장 최명희 강릉시장)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장을 당연직 이사, 시의원 및 기업인, 학계 전문가 등을 선임직 이사로 위촉하는 등 총 13명으로 이사진을 보강하고, 정태환 현 강릉예총 회장을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다.

지난해 운영기금 축소로 임시 동결된 재단 예산 지출건도 해지, 올해부터 지역 각종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.

특히 강릉시는 지난해 발생한 강릉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수입 중 1억6600만원을 재단에 위탁운용 키로 함으로써 올해는 보다 많은 예산이 지역 예술인재들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진흥활동에 지원 될 예정이다. 그러나 현재 강릉문예재단의 역할이 기금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예술인 재 및 기초 예술분야 육성, 공연예술 활성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단 역할 확대 등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단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최명희 이사장은 “문향(文鄉) 예향(藝鄉) 강릉의 위상이 과거의 명성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”며 “거듭난 재단이 지역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 강릉/박경란

© 강원도민일보(<http://www.kado.net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